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6강 분별의 영성

1.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예언자(렘 23:9-12)

예레미야 23:9-40은 모두 다섯 개의 단락(9-12절; 13-15절; 16-24절; 25-32절; 33-40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 이 다섯 개의 단락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선포된,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말씀드리지만 그 주제가 공통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진 것 같다. 또한 9절의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어구는 예레미야 23장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표제이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3:9-12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단락은 예레미야의 탄식(9절), 고발(10-11절)과 심판(12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레미야 23:9a는 탄원과 경악의 표현으로 시작한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렘 23:9)

여기서 ‘마음’(레브)은 ‘인격의 중심’(the center of personality)을 가리킨다. 이는 감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의지적이고 지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극도로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또한 사람의 골격을 제공하는 것이 뼈의 기능인데, 뼈가 떨린다는 것은 극심한 고뇌로 인해서 ‘사고 체계’가 산산조각이 난 것을 말한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뼈마디가 떨리며, 독한 술에 취해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된 사람 같았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아웨와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이다(9b절). 이는 신접(神接)하여 의식을 상실한 황홀경(恍惚境)에 빠진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욥 4:12-15). 이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료 거짓 예언자에 대한 고발과 심판 시리즈가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다른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참조. 렘 23:16).

예레미야는 탄원의 동인(動因)이 되는 사실을 드러낸다. 유다 땅이 온통 ‘행음하는 자’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0a절). ‘행음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아프’는 본디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성행위를 함을 뜻한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서에서 9:2와 29:23의 두 군데만 더 나온다. 예레미야 9:2는 유다 백성의 타락상을 표현하고, 29:23에서는 이웃 아내와의 간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유다의 성적 문란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모두를 암시한다.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계도 더불어 저주를 받아 땅이 메마르고 들의 풀밭들도 말라버린다(10b절; 참조. 호 4:3 등). 유다의 비극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타락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래서는 안 되는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 절망적이게도 당시의 종교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

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 지라”(11a절).

11a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선지자‘도’, 제사장‘도’”라는 구절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도’(감, 우리말 성서에는 생략됨)는 이러한 안타까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집(예루살렘 성전)에서‘도’(감) 공공연하게 발견된다(11b절). 11절은 ‘도’(감)라는 낱말을 세 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유다 백성 전체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상 야웨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인 제사장과 예언자들마저도 야웨와의 연결을 파기해 버렸다. 그것도 성전(‘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은 불가피하였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12절). 여기서 ‘재앙’이라는 히브리어는 ‘라아’로서 10절의 ‘악’(라아)과 11절의 ‘악’(라아)과 같은 단어이다. ‘라아’를 행한 자에게 ‘라아’로 되갚아질 것이다. 12절은 야웨의 발언이라는 어구로 끝난다: “야웨의 말씀이니라”(네움 야웨).

최후의 양심세력으로 진실성과 도덕성을 지켜나가야 할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지도자들마저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일삼기에 바빴으며, 혼란만 가중시켰다 적어도 종교지도자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최후로 기댈 수 있는 도덕적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그들도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이 없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씀이 주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삶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삶의 방향도 흐트러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 세상적인 가치관에 놀아나다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만다.

예화1: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다. 시편 1:2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 년 일독의 실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 이성, 돈 그리고 권력에 이끌리는 예언자(렘 23:13-15)

예레미야는 이어지는 단락(렘 23:13-15)에서 종교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예언자에 집중하여 언급한다. 그는 사마리아의 예언자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을 비교한다.

“13)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렘 23:13-14)

그런데 그 고발의 무게 중심은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 기운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예언자가 저지른 최악의 막중함을 강조한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우매’하였다면(13절),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가증’하였다(14절). 전자가 보여준 것이 ‘기분 나쁜 차원’이라면, 후자는 ‘소름 끼치는 차원’이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은 아웨 단독송배의 요구, 즉 제1계명을 어겼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아웨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그들을 타락시켰다(13절). 이에 비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의 고발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14절).

14절은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가증한 행동을 비교적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14절).

첫째,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사마리아 예언자들의 종교적 탈선에 덧붙여 부도덕한 짓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이었다(참조. 렘 3:11). 그들은 실제적으로 성적인 간음(姦淫)을 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4b절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암시된다.

둘째, 그들은 “거짓을 말했다”(할라크 바쉐케르).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이전에 선포한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부정한 잇속만 챙기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렘 6:13)를 근거로 볼 때 예언자들이 돈에 매수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참조. 미 3:5, 10).

셋째,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고 고발된다. 즉 이 예언자들은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람마다 악함에서 돌아오지 않게 한 것이다. 여기서 ‘손을 강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시드기야 통치 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할 때 사용한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이 사람[예레미야]이 백성의 평안(shalom)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 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렘 38:4).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면(‘손을 약하게 하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정책(‘악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정당화시켜 주었다(‘손을 강하게 하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주도세

력에 의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고, 이와는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정치 지도자나, 궁중의 왕실 인물들이 자신들 집단의 이권(利權)을 위해서 취하는 일련의 잘못된 외교·종교·조세정책 등과 같은, 한 나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14절의 고발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고 끝을 맺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여기서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참조. 창 18:20; 19:1-29).

결국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판이 선고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15a절).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이곳 외에 두 번 더 나온다(렘 8:14; 9:15).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시된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15b절).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유다 나라 전체의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예언자들이 최악의 원천(源泉)이라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온 나라에 악이 퍼졌는데, 그 모든 악의 본산지(本產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단(一團)의 예언자들이란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이거나, 제의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인 ‘악’도 만만치 않지만, 그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눈감아주거나 허용한 잘못된 외교·종교정책이 국가의 멸망을 자초(自招)했음을 가리킨다. 예언자의 타락이란 자신이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권력과 백성을 바로 잡지 않은 것도 가리킨다고 하겠다. 종교지도자 스스로가 바로 살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거짓 예언자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삶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성적인 타락마저도 범한다. 둘째, 물질에 끌려다닌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질에 매수당하기도 한다. 셋째, 권력에 민감하다. 권력자들 주변에 맴돈다. 결국 권력과 결탁한다.

3. 자신을 속이고 결국 자신에게 속는 예언자(렘 23:16-22)

이 단락(렘 23:16-22)에 와서는 더는 예언자의 윤리적인 오명을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과 출처가 문제가 된다. 즉 본격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거짓 예언의 특징을 낱알이 지적하고 있다.

사실 예언자란 예레미야 1:7과 17에서 살펴보았듯이 야웨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웨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16절).

거짓 예언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헛된 것’의 히브리어 어근은 ‘헤벨’이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숨’, ‘바람’, ‘덧없음’ 등이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결국엔, ‘무(無)’이고, ‘완전한 공허’(nothingness)일 뿐이다. 또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자기 유도적인 상태, 즉 일종의 환각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묵시’란 ‘스스로 유도해 낸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백성들을 속이는 것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예언이다.

17절에서는 거짓 예언의 두 번째 특징이 언급된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렘 23:17).

즉 “근거 없는 평화를 남발하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길, 평화(shalom)를 확인하고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왜곡하여 말한다(참조. 렘 5:12). ‘하나님을 멸시하다’에서 히브리어 동사 ‘나아츠’(멸시하다/무시하다)라는 어근은 ‘야웨를 부정하는 의미’가 강한 말이다. 여기서 파생된 말들 중 하나에 ‘신성모독’(blasphemy/desec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다. 거짓 예언자들이 상대하는 자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수이 여기는 자들’과 ‘그 마음이 굳어진 채 살아가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는 타락한 예언자 못지않게 타락한 청중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천상회의’(divine/heavenly council, 소드)의 참석 여부를 질문한다.

“누가 야웨의 회의(소드)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렘 23:18)

‘천상회의’란 이 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모인 회의를 말한다. 이 천상회의는 야웨께서 직접 주재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이 땅에 알리기 위해 메신저(주로 예언자)를 파송한다(참조. 왕상 22:19-23; 사 6:6-8; 40:1-8). 이렇게 파송 받은 예언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사로운 사건을 전할 자유가 없다. 그는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판결만을 전할 뿐이다. 이 구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의 특권인 천상회의에 참석하

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18절은 16-17절에서 다루고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예언자임을 밝히는 구절이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언자 행세하는 것에 대한 아웨의 노여움이 19-20절에 언급된다.

19-20절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징벌과 심판에 대한 것이다.

“19) 보라 여호와와 그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 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렘 23:19-20).

마침내 아웨의 분노가 ‘일어난다/발한다/터져 나온다’(야짜). 보통 ‘야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서부터 임한다는 암시도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에 쓰이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악인들의 머리 위로 빙빙 돌다가 일순간에 그들에게 휘몰아친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무 근거도 없었고, 또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하는 판이라, 도저히 피할 재간도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끝 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20b절). 즉 큰 재난이 일어난 뒤에서야 비로소 거짓 예언자들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22절은 16-18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렘 23:21-22).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파송(Sendung)과 위임(Auftrag)이 없이도, 즉 보냄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임받은 말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도 달려가고, 잘도 혀를 놀려댔다(21절; 참조. 렘 14:14). 만약 그들이 천상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여 지도층들과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22절).

나가는 말

거짓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메시지의 본질적인 특징은 전혀 “현실에 탄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허황된 확신과 위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 예언은 청중도 원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그야말로 인기에 영합(迎合)한 거짓말이었다(렘 5:31). 예레미야 14:15-16에 따르면,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렘 14:15-16).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한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에게 근거 없는 평강(shalom)과 구원을 남발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 없이 제대로 전해야 한다. 결국 거짓 예언자의 구원 예언은 모두를 죽이고, 참 예언자의 심판 예언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언을 말한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은 말씀도 없다. 따라서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리고 청중이 기대하는 근거 없는 평화를 남발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말한 거짓 예언에 자신이 속고 있다는 점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화: 기억은 자작극이며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 2009, 48-51[‘가끔’ 후회하는 남편과 ‘아주 가끔’ 만족하는 아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구분은 영원한 숙제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거짓 예언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바란다. 이성, 돈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 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을 속이거나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본성적 죄 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성과 돈과 권력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